

2025 글로벌 인재 포럼: 특별세션3

고속련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 활성화 방안

오정은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목 차



-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정책
 -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유형
-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 · 정주 환경
- 외국인 유학생 취업 · 정주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정책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발전

외국인 유학생 정책 도입기: 2004~2010

- 2004년 Study Korea Project 발표
 - 2005년부터 시행
 - 국가차원 외국인 유학생 정책 시작
- 유학생 유치 양적 확대에 초점
 - 2010년까지 유학생 5만명 유치 목표
 - 목표 초과달성: 2023년 12,314명 → 2010년 83,842명
- 유학생 관리 문제점 노출
 - 중도탈락 유학생 증가
 - 유학비자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노동자 증가
 - 대학 학습환경 악화에 대한 국내 학생 불만 증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발전

외국인 유학생 정책 도약기: 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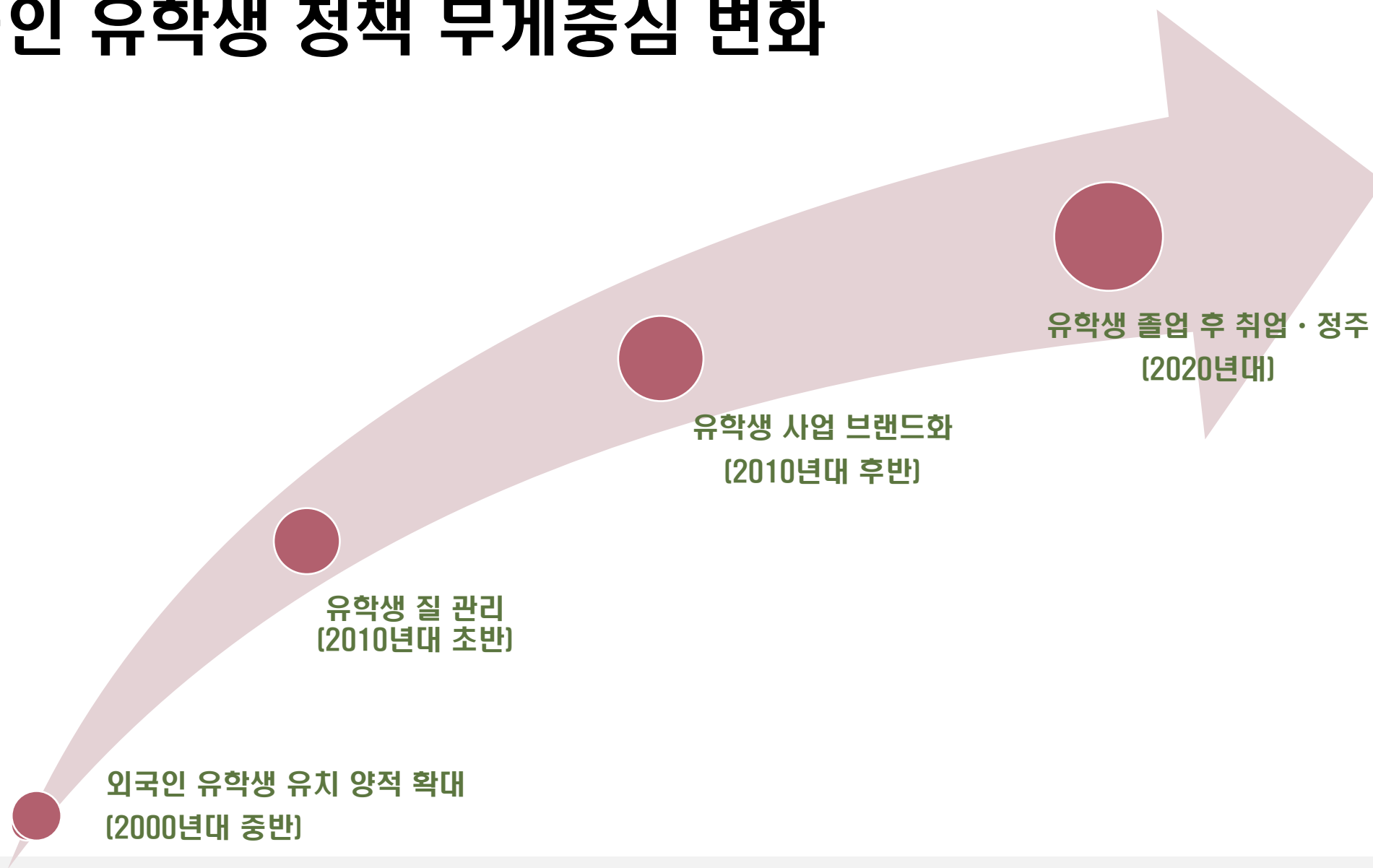
-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IEQAS) 도입
 -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제도화
- 2012년 Study Korea 2020 도입
 -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 → COVID-19 영향으로 기간 연장
- 정부초청장학사업 브랜드화
 - 1967년 시작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KGSP)를 GKS 사업으로 리브랜딩
 - GKS 사업을 한국의 풀브라이트로 확대 발전시키는 목표 제시
- 2014년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 대해 유학생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발전

외국인 유학생 정책 성숙기: 2023~현재

- 2023년 1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간소화
 - 일반 석·박사 유학생 영주·귀화: 4-5단계, 최소 6년 소요
 - ★ 석·박사 → 전문직 → 거주 → 영주 → 일반귀화
 -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적용 유학생 영주·귀화: 3단계, 3년 정도 소요
 - ★ 석·박사 → 거주 → 영주·특별귀화
 - 국적 취득시 우수인재 특별귀화 적용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 일반 우수대학 졸업생을 포함하는 K-STAR 비자트랙으로 확대 개편 예정
- 2023년 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
 - 2030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
 - 유학생 취업연계 강화, 우수인재 정주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정책 무게중심 변화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유형



외국인 유학생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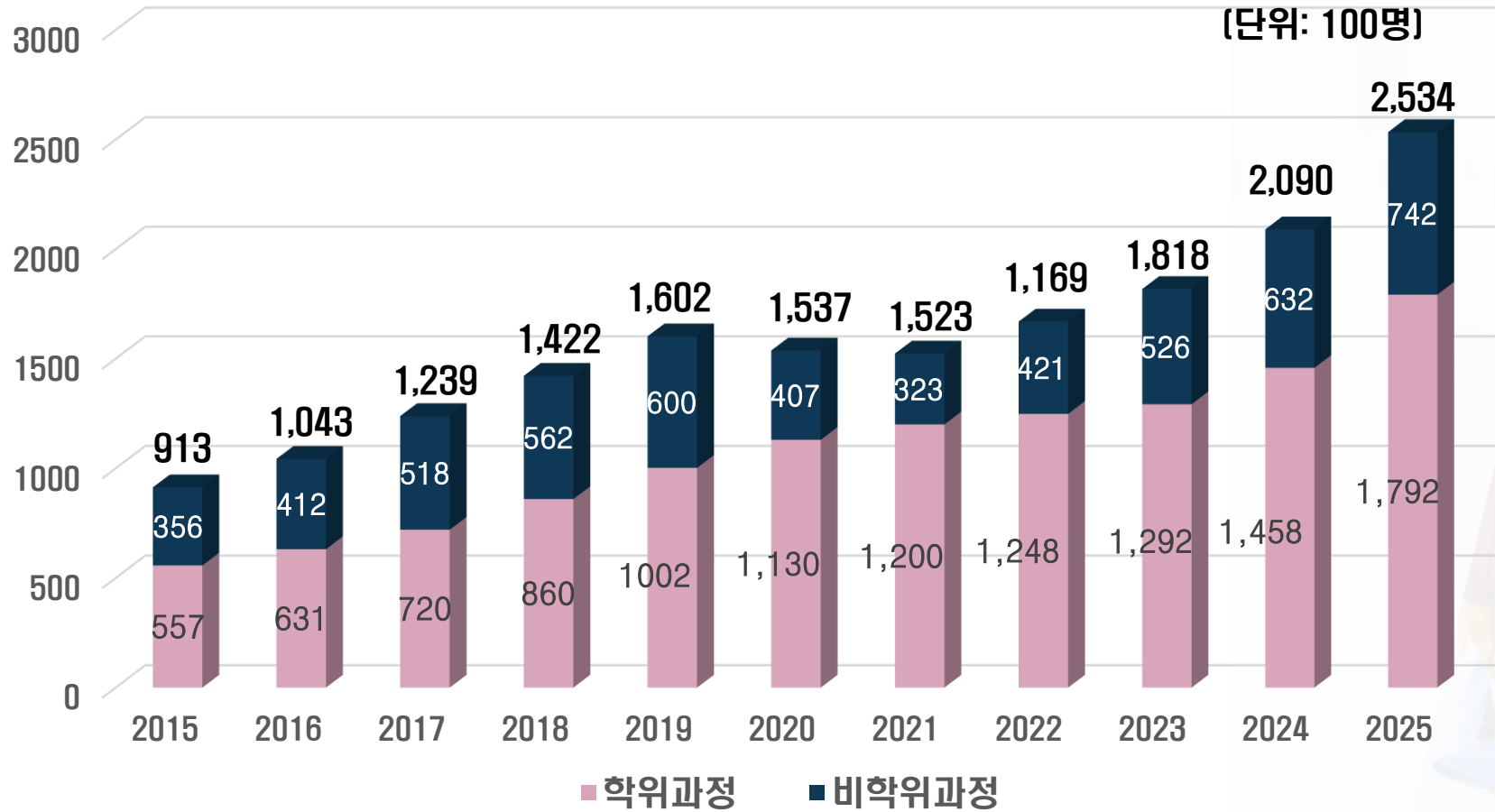
체류자격에 따라

- 외국인학생(Foreign Student)
 -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신분 학생
-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
 -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신분 학생
 - 한국의 유학(D2) 사증 소지 유학생

학업 과정에 따라

- 연수생(=비학위과정생)
 - 학위과정 진학에 앞서 국내 교육기관에서 언어 연수 중인 유학생
- 학위과정생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특정연구과정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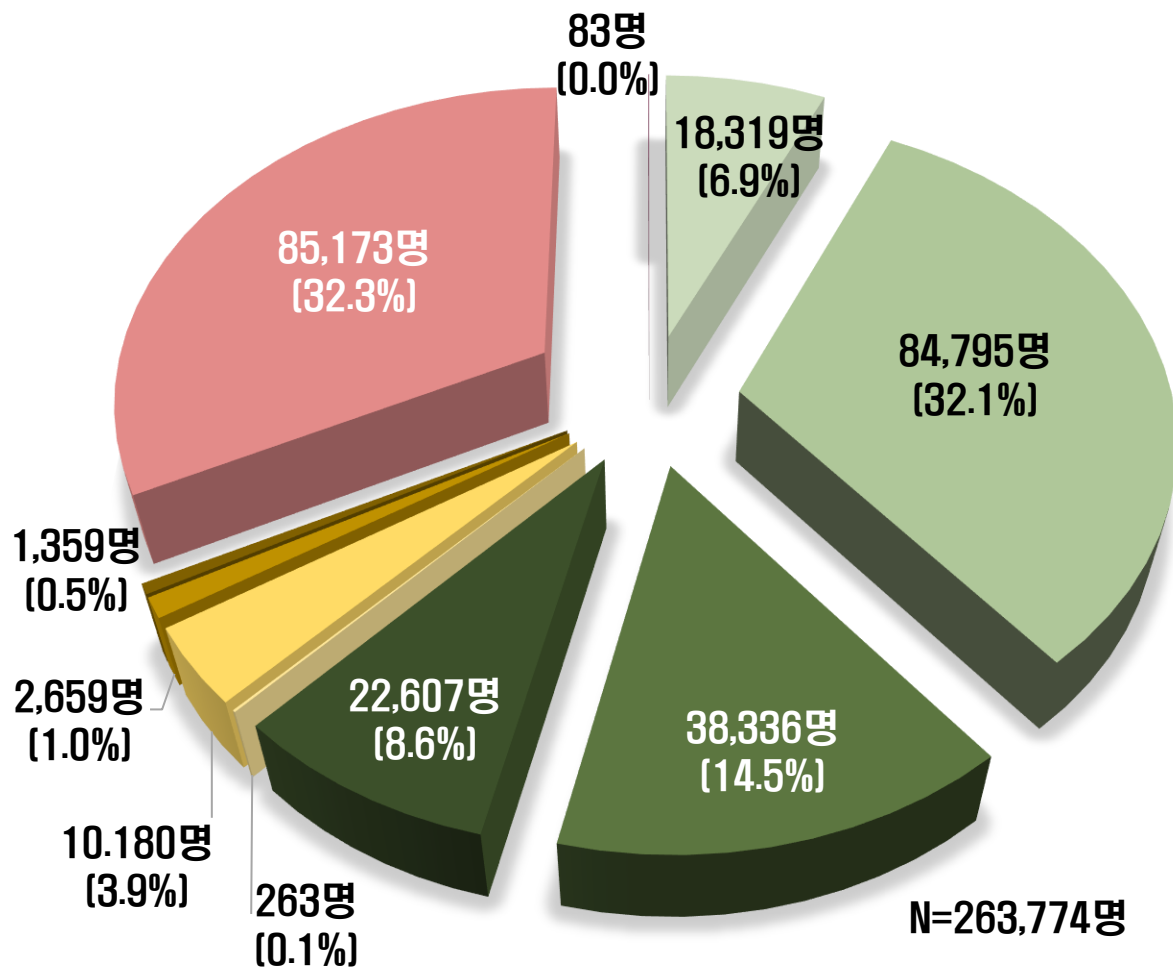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2015~2025)



주: 매년 4월 1일 기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5.10.01)

체류자격별 · 과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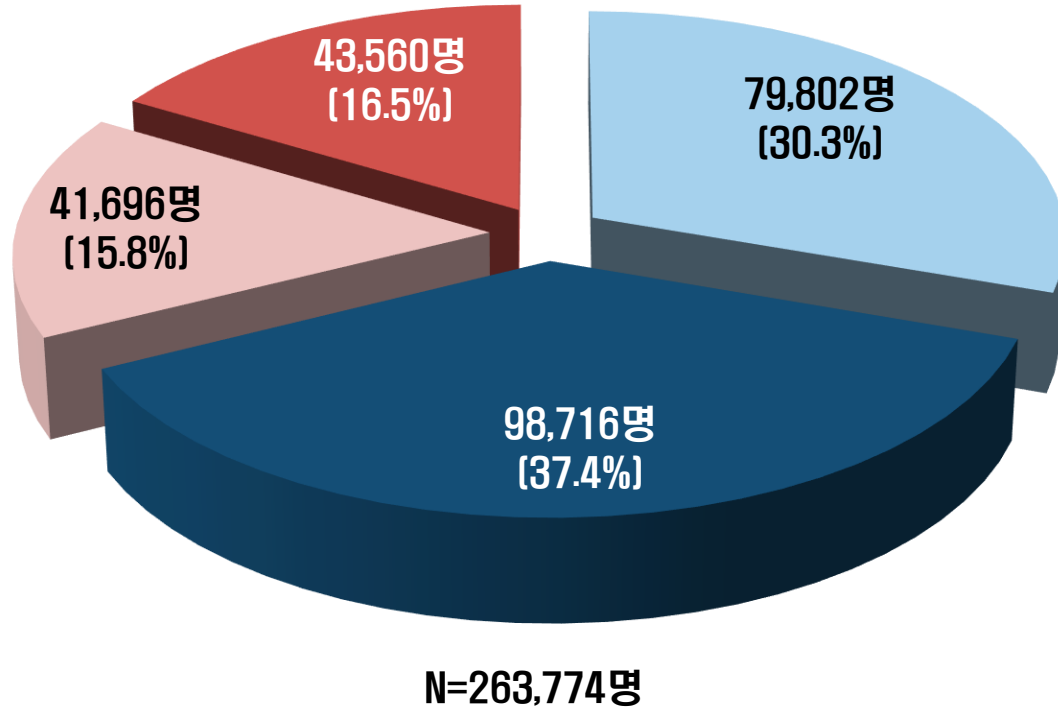
- D2-01 (전문학사)
- D2-02 (학사유학)
- D2-03 (석사유학)
- D2-04 (박사유학)
- D2-05 (연구유학)
- D2-06 (교환학생)
- D2-07 (일-학습연계 유학)
- D2-08 (방문학생)
- D4-01 (대학부설어학원연수)
- D4-07 (외국어연수)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D2 계열 및 D4 계열 사증 소지자에 한정.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성별 · 과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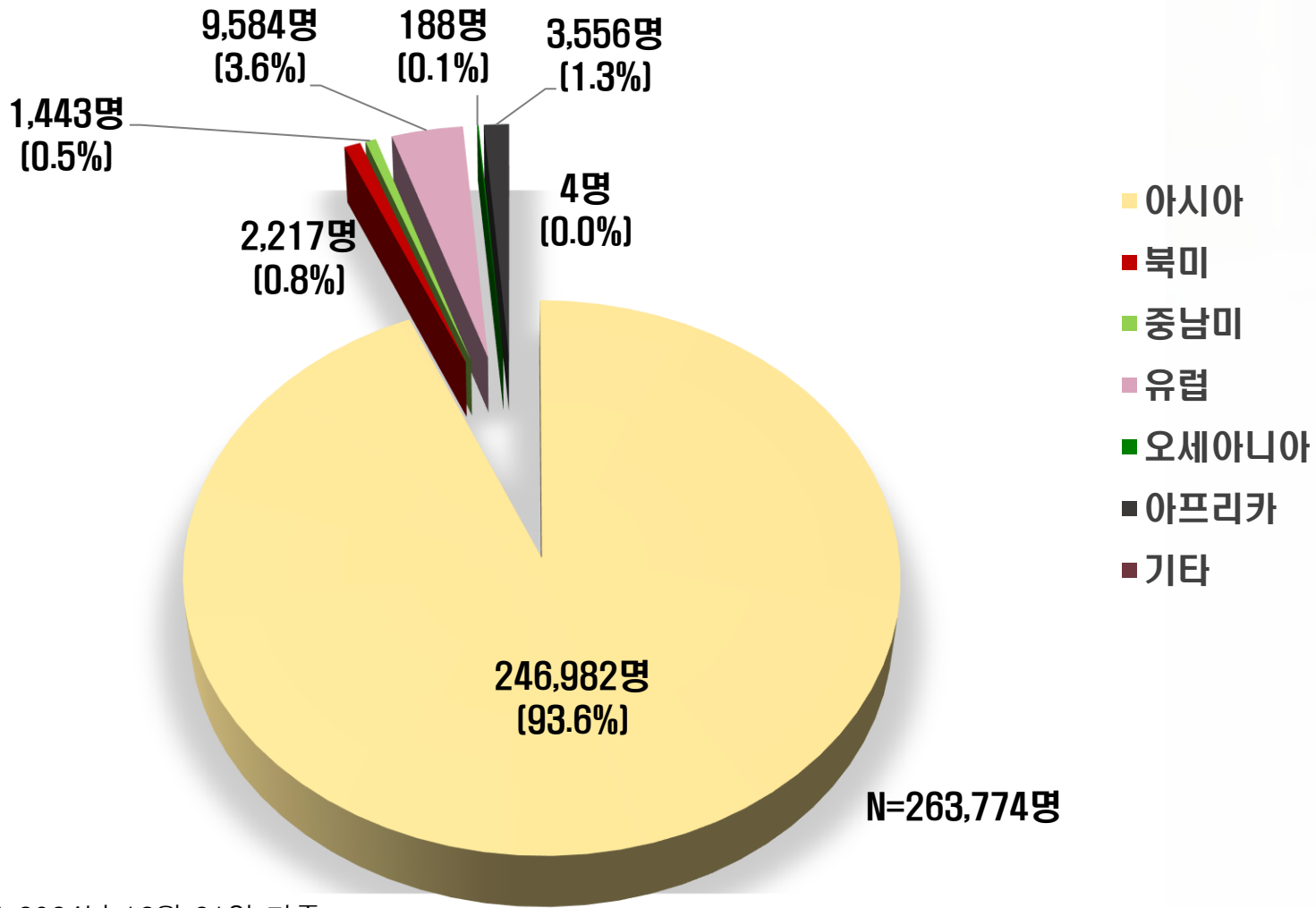


- 학위과정 남성
- 학위과정 여성
- 연수과정 남성
- 연수과정 여성

● 학위과정: 178,518명
● 연수과정: 85,256명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D2 계열 및 D4 계열 사증 소지자에 한정.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신지역별 현황



- 아시아
- 북미
- 중남미
- 유럽
-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 기타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D2 계열 및 D4 계열 사증 소지자에 한정.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현황

국가	인원(명)	비율	국가	인원(명)	비율
베트남	96,957	36.8%	파키스탄	1,934	0.7%
중국	74,919	28.4%	프랑스	1,875	0.7%
몽골	16,655	6.3%	키르기즈공화국	1,787	0.7%
우즈베키스탄	15,352	5.8%	카자흐스탄	1,535	0.6%
네팔	9,229	3.5%	타이완	1,497	0.6%
미얀마	7,525	2.9%	독일	1,200	0.5%
일본	4,203	1.6%	말레이시아	1,183	0.4%
방글라데시	2,977	1.1%	타이	1,017	0.4%
인도네시아	2,680	1.0%	스리랑카	826	0.3%
러시아(연방)	2,402	0.9%	필리핀	789	0.3%
인도	2,025	0.8%	기타	13,195	5.0%
미국	2,012	0.8%	전체	263,774	100.0%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D2 계열 및 D4 계열 사증 소지자에 한정.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학원 재학 외국인 유학생 전공 현황

(단위: 명)

전공	외국인 유학생수								
	외국인유학생수			석사			박사		
	전체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인문계열	7,947	2,619	5,328	5,863	1,914	3,949	2,084	705	1,379
사회계열	26,266	10,668	15,598	21,991	8,707	13,284	4,275	1,961	2,314
교육계열	3,510	1,045	2,465	2,188	573	1,615	1,322	472	850
공학계열	6,628	4,535	2,093	3,593	2,423	1,170	3,035	2,112	923
자연계열	2,664	1,091	1,573	1,293	441	852	1,371	650	721
의약계열	1,733	684	1,049	949	342	607	784	342	442
대학원 전체	59,040	25,172	33,868	41,278	16,607	24,671	17,762	8,565	9,197

주: 2025년 4월 1일 기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5.10.01)

연도별 GKS 외국인 유학생 선발자(1967~2024)

(단위: 명)

구분	1967~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전문학사	82	35	35	50	29	29	260
학사	1,614	179	184	266	206	437	2,886
석사	6,037	870	937	929	945	1,576	11,294
박사	1,885	229	191	159	147	225	2,836
연구	177	7	4	6	7	4	205
어학연수						51	51
전체	9,795	1320	1351	1410	1334	2322	17,532

출처: 교육부 2024년 12월 17일 보도자료.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유형 특징

- 아시아출신 유학생이 절대 다수 차지
 - 2024년 말 기준 93.6%
 - 유학생 출신국 상위 9개국이 아시아 국가
- 베트남 출신이 전체 유학생의 1/3 이상 차지
- 대학원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회과학 분야 전공
- 전공별로 뚜렷한 성비 격차 발생
 -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은 여학생 다수
 - 공학계열은 남학생 다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 정주 환경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1]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대학 경쟁력 유지

- 내국인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 학생 확보 수단
- 유학생 납부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 확충
- 대학의 국제화 촉진

지방 인구위기 해소

- 지방대 유학생의 주소 등록으로 지방 인구 수 증가
 - 유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유학생 졸업 후 지방 취업 · 정주로 청년인구 증가 기대 가능
- Cf. 광역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효과 기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2]

한국인에 버금가는 준숙련(semi-skilled) 인력 역할

- 재학 중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인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보유 인력
-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인력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숙련 인재 역할

- 한국과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고학력 전문가
-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내국인 연구자가 부족한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환경(1)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의향 설문조사(2024)

● 조사방법

- 교육부 지원을 받는 라이즈사업 시범 운영 5개 지자체에서 2024년 6월~10월 개최된 유학생 취업박람회 참여 유학생 대상 현장 설문조사
 - 전북(6.27), 경북(8.28), 전남(9.11), 부산(9.27), 충북(10.31)
- 취업박람회 참여 유학생 1,999명 중 1,207명 응답

● 조사결과

- 「지역단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 응답자 42.5%가 한국취업 희망, 응답자 45.5%가 한국 또는 본국 취업 희망
 - 한국취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
- 응답자의 55.1%는 현재 거주지역 취업 희망, 37.2%는 수도권 취업 희망
- 한국취업에 필요한 한국기업 정보 취득, 취업 절차 준비, 비자 정보 취득 등에 어려움 경험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환경(2)

기업 대상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향 조사(2024)

● 조사방법

- 교육부 지원을 받는 라이즈사업 시범 운영 5개 지자체에서 2024년 6월~10월 개최된 유학생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대상 현장 설문조사
 - 전북(6.27), 경북(8.28), 전남(9.11), 부산(9.27), 충북(10.31)
-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135개사 중 98개사 응답

● 조사결과

- 「지역단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 기업의 외국인 채용 이유
 -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57.0%)
 - 조직 내 인재 다양성을 위하여(21.5%)
 -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17.2%)
- 외국인 채용시 비유학생보다 유학생을 선호한다는 응답 62.3%
-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5.3%

국내 업체의 외국인 유학생 출신 채용 환경[1]

한국무역협회 조사[2025]

● 조사방법

-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수출기업 인사 담당자
- 기간: 2025년 5월 16~20일(5일간)
- 내용
 - 국내 유학생 출신 외국인 채용 현황
 - 외국인 인재 채용 지원 사업 활용 경험
 - 외국인 채용 관련 정책 제언
 - 외국인 채용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인식 및 건의사항 등
- 응답: 총 287개사
 - 중소기업(91.3%), 중견기업(8.0%), 대기업(0.7%)

국내 업체의 외국인 유학생 출신 채용 환경[2]

한국무역협회 조사[2025]

● 조사결과

➤ 국내 유학생 출신 채용 애로사항: 복수응답

- 유학생 구직자 정보 부족(39.4%)
- 비자 취득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35.9%)
- 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문제(29.6%)
- 잦은 이직에 따른 관리 부담(17.4%)
- 높은 인건비와 부대비용(2.8%)
- 기타(2.8%) → 신원확인 및 검증 어려움(0.7%), 개인역량 평가 애로(0.3%)

➤ 외국인 유학생 채용 지원사업 만족도

- 지원사업 활용 경험: 있다(13.9%) vs. 없다(86.1%)
- 지원사업 활용 경험사 만족도: '되움 된다'는 응답 65.0%

Cf. 별로 도움 안됨(12.5%), 보통(22.5%), 어느정도 도움(50.0%), 매우도움(15.0%)



외국인 유학생 취업 · 정주 활성화 방안

유학생의 역할

외국인 유학생의 장점 발굴

- 한국인 학생과 차별화를 통한 자기 경쟁력 확보 노력
- 출신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으로서의 개성 접목

중장기적 관점의 취업 전략 수립과 추진

- 유학생할 초기부터 졸업 후 한국취업 가능성 탐색
- 전문직 취업에 요구되는 자격요건 확인과 준비
- 교내·외 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산학프로젝트 적극 참여
- 한국 취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 프로필 관리

정주 가능 경로 설계

- 유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한국 비자제도 학습



대학의 역할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 한국어 능력만으로 유학생을 평가하는 동화주의적 사고 탈피
- 국적으로 유학생 특성과 역량을 예단하는 편견 극복

유학생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운영: 이력서 작성법, 면접, 한국 직장문화 등
- 지역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 및 취업박람회 정기 개최
- 취업 성공 선배 유학생 멘토링

비자 전문인력 채용

- 유학생 본인 비자 전환 지원: 비자상담, 관련서류 작성 도움
- 가족동반 비자 신청 지원 및 정보 제공



기업의 역할

유학생 출신 채용 시스템 도입

- 유학생 출신 전용 채용 공고 및 채용 설명회 운영
- 대학-기업-지역사회 연계 유학생 인턴십 제도 적극 참여
- E7 비자 스폰서십 및 비자 발급 비용 지원
- 외국인 친화적 채용 절차: 영어면접 옵션, 영어 이력서 수용 등

유학생 출신 장기근속자 정주 인센티브 제공

- 장기근속자 영주권(F5) 취득 지원 및 컨설팅
- 본국 방문 항공료 지원 제도화: ex) 연 1회

사내 다문화 환경 조성 노력

- 정기적 다문화이해 교육 도입
- 외국인 문화 존중: ex) 한국 명절과 본국 명절 중 명절휴가 선택권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단위 유학생 취업 지원

- 지역 기업-지역 유학생 매칭 플랫폼 및 일자리 박람회 운영
- 지역 유학생을 위한 지역 정착 장려금제도 도입
-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유학생 상담 업무 보완

유학생을 위한 가족 동반 정착 환경 조성

- 외국인 친화적 공공주택 공급
- 외국인 친화적 공인중계사 지정 제도 운영
- 외국인 자녀에게 적합한 지역 학교 안내: ex) 다문화교육정책학교
- 배우자 한국어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중앙정부의 역할

📖 국내 학위취득 유학생 취업 · 정주 비자 개선

- 점수제 영주권 제도에서 유학생 경력 가산점 확대
- 유학생 동반가족 비자 발급 간소화

📖 유학생 취업 독려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대학의 유학생 취업을 평가 및 우수대학 사례 공유
- 국내 학위취득 유학생 채용 기업 대상 지원금 제도 도입

📖 유학생정책-고용정책-이민정책 연계

- 중앙정부 차원의 유학생통계 방식 합의
- 유학생정책-고용정책-이민정책 주무부처 정책 협의 정례화
- 유학생정책-고용정책-이민정책 민간전문가 협업 지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정은 (OH, Jung-Eun)



[+82] (0)10 5167 5416



mouton3@hansung.ac.kr



<https://hansung.ac.kr/migration/index.do>